



두 바퀴로 달리는 즐거움

속도감을 즐기려 자전거를 탔다는 큐브리드 마케팅팀 정병주 차장. 지금은 멋진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만 두 바퀴로 달리는 즐거움은 자동차의 빠른 속도보다 컸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동안 온갖 스트레스도, 건강에 대한 염려도 바람 속으로 날아가 버린다. 벌써 11년째 타고 있는 산악자전거는 술과 친구를 좋아하는 정병주 차장을 여전히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글과 사진_허은경



자전거가 대세일까? 최근 방송 등 언론매체에서 천천히 가는 즐거움, 자전거에 관한 이야기가 한창이다.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있지 않은 우리나라지만 내 힘을 쓰는 만큼 구르는 정직함과 뽐뽐 힘을 쓰며 오른 후에 내달리는 내리막의 쾌감이 사람들은 오늘도 자전거를 타고 나선다.

DBMS 전문기업 큐브리드 마케팅팀 정병주 차장은 주말이면 자전거를 타고 달린다. MTB, 산악자전거는 말 그대로 산을 타기위한 자전거 또는 자전거로 산을 타는 취미활동이다. 정병주 차장은 비록 험한 산을 오르지는 않지만 과천 인근 비포장도로와 언덕을 지나 양재천과 한강변을 자전거로 달리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

워낙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 농구, 축구, 스케이트까지 다양한 운동을 즐기지만 어릴 적부터 탄 자전거는 속도감이라는 묘하고 짜릿한 즐거움이 있었다. 일반 자전거를 거쳐 더 전문적인 산악자전거를 시작했다. 처음 타기 시작했을 때, 패기 넘치는 초보라이더는 한여름에 서울-부산 구간을 자전거로 완주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었지만 노출된 부위 모두 1도 화상이라는 영광을 상처를 안고 천안에서 친구의 차에 실려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다(결국 일 년 후에 서울-춘천 왕복에 성공해 포항을 풀었다). 고생도 많았지만 소중한 추억과 함께 자전거도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다.

“주말이나 괜히 마음이 답답해지는 평일 저녁이면 양재천에서 올림픽 대교까지 왕복 3시간 남짓을 달립니다. 비교적 잘 가꾸어진 한강변의 자전거 도로를 썩썩 달리다 보면 온갖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지요.”

환경보전, 건강, 교통체증 해소 등 많은 이점이 있는 자전거지만 달리기처럼 앞을 향해서만 가는 형태의 운동은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을 갖게 한다는 것이 자전거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말한다.

“기회가 된다면 더 험한 산에도 가고 싶어요. 워낙 산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정형화 되지 않은 비포장 길이나 산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산악자전거는 등산과는 달리 스릴을 느낄 수 있고 힘든 만큼 도전을 통한 성취감도 크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인터뷰 내내 시원시원한 말투와 목소리, 행동에서 활력이 넘친다.

요즘은 5살이 된 첫째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치며 또 다른 자전거의 재미를 느낀다고. 아직은 양증맞은 보조바퀴를 단채 조심스럽지만 언젠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함께 부산까지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